
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

2020. 2. 24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순서

I. 추진배경	1
II.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향	3
1.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	3
2.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	6
3.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	8
III. 향후 추진계획	11

I. 추진배경

1. 그간의 추진경과

① '18.1월, 「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」 발표*

*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

② '18.7월,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」에 따른 제도 시범운영 실시

- 7개 금융그룹*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,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순조롭게 안착

* '20.2월 현재,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 6개 대상 (롯데는 '19.12월 제외)

※ [참고] 제도 시범운영 내용

- ① (감독대상 지정)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*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
* 여수신·보험·금투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
- ② (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)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,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
 -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·운영
 - 감독당국에 분기별 이행현황 보고
- ③ (금융그룹 건전성 관리)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·집중위험,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·감독

③ 금융그룹별 운영상황 점검, 실태평가 및 컨설팅 실시

- 그룹별 전이위험 모의평가('19.5월~6월) 및 컨설팅 실시('19.9월~)
- 위험관리실태평가*(개별업권 경영실태평가와 유사) 시행('19.10월~)

* 매년 2~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

- 금융그룹 현장방문 실시(수시)

④ 「금융그룹감독법안」 국회 발의*(법안소위 계류중)

* '18.6.29 박선숙의원안, 11.16 이학영의원안

⑤ 「금융그룹감독 향후 추진방향」 세미나 개최('20.1.29/ 금융연·자본연 주최)

2. 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」 추진배경

◆ 2년여 간의 시범운영 경험과 전문가·금융그룹 의견 등을 반영하여 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」을 마련

① (시범운영 경험) 그룹 위험관리측면에서는 제도가 안착*된 반면, 그룹차원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**

* 전담조직 설치 및 소속회사간 협의회 운영, 그룹위험 한도관리·모니터링 등

** 내부통제를 위해 금융그룹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공통원칙, 협의채널 부재 등

○ 그룹위험 평가시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·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이 평가결과에 반영되도록 유인*(incentive) 제공 필요

* ① 등급간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

② 우수한 등급은 추가 자본을 부과하지 않거나 훨씬 더 적게 부과하는 방식 등

② (전문가 의견) 현행 그룹위험 평가 및 자본규제 방식*은 그룹 위험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

* 그룹위험을 '전이·집중위험'으로 나누어 측정·평가 → 필요자본에 가산(☞후술)

○ 주요 선진국의 금융그룹과 같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 · 관리 할 수 있는 선제적 위험관리체계* 구축 등 감독방향 제언

* 금융그룹의 자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, 계열사별 위험한도 배분 등

③ (법제화 대비) 제도의 법제화에 대비하여 제도의 합리성·실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·추진

○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경험, 주요국 감독사례 등을 토대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

Ⅱ.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향

1.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

가. 현황 및 개편배경

- (자본적정성 평가기준) 금융부문 전체 「적격자본(손실흡수능력)」이 「필요자본(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)」 이상이 되도록 관리

$$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자본합계 - ①중복자본 차감)}}{\text{필요자본 (최소요구자본 + ②전이위험 + ③집중위험 가산)}} \geq 100\%$$

- ① 중복자본 :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 자본 과다계상을 야기하는 가공의 자본
② 전이위험 : 계열사 위기시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
③ 집중위험 : 금융그룹의 자산이 특정 산업, 거래상대방, 지역 등에 과도하게 한군데 집중

- (현황) 모범규준으로 ①중복자본 차감은 시행 중, ②전이위험은 모의평가('19.5~6)를 토대로 평가방안의 개선 필요사항 등 점검
- ③집중위험은 법안의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기준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며,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따른 위험 중심으로 검토
- ※ (모범규준 下) 중복자본·전이위험만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여 내부 모니터링 (입법 이후) 집중위험도 필요자본에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·공시
- (개편배경) 모범규준 하에서도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·평가하고, 필요자본 가산방식 관련 업계 건의도 반영
- 전이·집중위험 간 중복평가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조정하고, 다양한 집중위험 요소(거래상대방·산업·지역별 편중위험 등)를 반영
- 평가의 변별력 제고, 우수등급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

현장의 목소리

- ▶ 전이위험 평가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등급(現 5등급) 세분화 필요<금융그룹>
▶ 등급이 우수한 그룹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가산비율 조정 필요<금융그룹>

나. 개편방안

- ◆ 전이·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하여,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
 -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,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는 가산비율 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

(1) 그룹위험의 평가

① 전이·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한 「그룹위험 평가기준」 운영

-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

$$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자본합계 - 중복자본 차감)}}{\text{필요자본 (최소요구자본 + 그룹위험 가산)}} \geq 100\%$$

- ①위험발생 가능성 및 ②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과 이를 ③감경시키는 요인을 대안지표로 하여 평가항목 구성

< 그룹위험의 증가·감소 요인들을 대표하는 평가부문 >

- ① 계열회사 위험 → 위험발생 가능성·크기
 - 그룹 내 계열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의 정도 ↑ ∝ 그룹위험 ↑
- ②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→ 위험 전이·확산 가능성(경로)
 - 그룹 내 계열사간 연계 정도 ↑ ∝ 그룹위험 ↑
- ③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→ 위험 감경 요소
 - 위험의 사전방지 및 효과적 인지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역량 ↑ ∝ 그룹위험 ↓

< 그룹위험 평가항목(예시) >

평가부문	평가항목	주요 평가지표
계열회사 위험	(1) 재무적 위험	계열회사의 재무적 위험, 특정 자산의 집중 정도 등
	(2) 비재무적 위험	계열회사의 운영·경영관리 등
계열사간 상호연계성	(1) 소유·지배구조	소유구조의 안정성·복잡성,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등
	(2) 내부거래 건전성	내부거래 규모,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
	(3) 평판 연계성	동일 명칭·로고 등 브랜드 연계 정도 등
내부통제 및 위험관리	(1) 내부통제체계	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·기준 적절성 등
	(2) 위험관리체계	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·기준 적절성 등

② 다양한 집중위험 요소를 평가항목에 반영

-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 외에도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반영

< 집중위험 평가요소(예시) >

기존검토안		개선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업권별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 초과액 	⇒ (다양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자산의 지역·산업별 집중도 ▪ 금융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▪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

[2] 평가결과의 필요자본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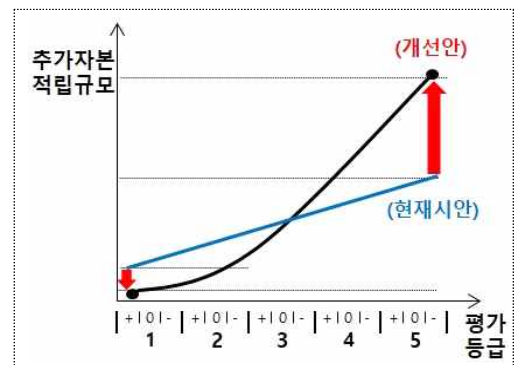
① 그룹위험 평가등급의 세분화 ※ 은행지주 리스크평가와 유사하게 변경

-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등급을 현재의 5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당 3개의 단계(+, 0, -)로 나누어 총 15등급으로 확대*

* (예) 기존 1등급 → 1⁺등급 / 1⁰등급 / 1⁻등급의 3단계로 세분화

② 우수한 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부과

- 모든 평가등급에 대하여 필요자본을 가산하되,
 - 등급별 가산비율은 단순비례가 아닌 가중비례 방식을 적용
- ➔ 우수한 등급일수록 필요자본 가산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



※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추진계획

- ① 그룹위험 평가모형 확정 및 필요자본 가산비율(안) 마련('20. 4월말)
- ② 그룹위험 모의평가 및 자본비율 모의시산('20.3분기)
 - * 금융그룹의 자체적 위험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
- ③ 법 제정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*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함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, 세부방안은 추후 하위규정에 구체화

* 자본적립 의무 부과 및 자본적정성 비율 공시는 법 제정 이후 시행

2.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

가. 현황 및 보고·공시방안 개선 필요성

□ (현황) 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위험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 중이나, 공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

- ① (감독당국 보고) 금융그룹은 모범기준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통해 그룹 위험요인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음
- ② (그룹차원의 공시 유예) 금융그룹감독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, 모범기준 부칙으로 공시 '시행'은 법 제정 이후로 유예*

*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기준」 부칙 제1조 : 제16조(보고 및 공시)의 공시관련 사항은 근거법률이 제정된 날부터 시행

□ (당국 보고체계 합리화 필요성) 감독목적 등 고려시 보고사항이 과도하게 많고, 보고주기도 짧아 금융그룹에 부담으로 작용

- 특히, 현행 분기별 정기보고 방식은 대규모 거래 등 일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시 파악·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

□ (공시 시행 필요성) 법 제정 전이라도 그룹차원 정보 제공 등 시장의 평가·감시 기능 활용을 통해 그룹감독 실효성 제고

- 개별회사 차원에서 이미 계열사간 거래내역, 신용공여 현황 등을 공시*하고 있어 그룹공시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,

* 기업집단현황 공시(공정거래법), 사업보고서(자본시장법) 등에 따라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출자내역·내부거래 현황 등은 기 공시중

- 개별 회사별 공시사항들은 산재되어 있어 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그룹차원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

현장의 목소리

- 그룹 위험요인의 일목요연한 파악, 시장의 감시기능 활성화 필요<129일 정책세미나>
- Joint Forum 국제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고, 금융그룹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 및 주기를 조정할 필요<금융그룹>

나.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방안

- ◆ 금융회사별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하여 그룹 재무현황, 출자구조,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,
 - 정기보고 간소화 및 주요 위험요인의 즉시보고 체계 마련

[1] 공시 시행 방안

- ① (항목) 모범규준상의 보고·공시 항목, 사업보고서 및 기업집단 공시 중 그룹위험 측면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*

* 금융그룹 의견수렴 등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 및 항목 확정 예정

< 주요 공시사항 (예시) >

소유·지배구조	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, 그룹 내부통제체계 현황
위험관리체계	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등
재무건전성※	계열사 출자·신용공여 현황, 중복자본 내역 등

※ 「그룹 자본적정성 비율」은 입법이후 공시

- ② (방식) 각 소속회사별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, 대표회사가 그룹 공시사항을 취합·검증하여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

- 다만, 「상법」상 개별회사 독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룹 단위 공시사항에 대해 소속 금융회사 확인*을 거쳐 공시

* 소속 금융회사 확인방식은 개별 그룹이 자율적으로 결정

- ③ (주기) 그룹위험에 미치는 영향, 공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공시주기를 달리 적용

*(예시) [분기] 재무, 출자현황 등 / [연간] 일반현황, 위험관리체계 등

[2] 보고 합리화 방안

-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, 그룹차원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은 당국에 즉시보고

※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방안 추진계획

- ◆ ‘공시체계 구축 TF’(업계참여, 운영중)에서 세부방안을 확정하고, 모범규준 개정 후 공시 및 변경된 보고방식 시행('20.6월)

3.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

가. 현황 및 도입 필요성

- **(현황)** 현행 금융그룹감독은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기준」에 따라 금융그룹의 ①자본적정성 및 ②위험관리 중심으로 규율
 -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실태평가 등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선 노력을 유도
 - *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는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에 따라 규율 중
- **(필요성)**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
 - 국제기준('12년 Joint Forum 감독원칙)은 ①자본적정성, ②위험관리, ③지배구조*의 3가지 요소를 금융그룹감독의 주요원칙으로 강조
 - * 특히,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금융그룹이 확실한 위험관리체계와 함께 **탄탄한 내부통제시스템, 효율적인 내부감사·준법감시시스템**을 갖추 것을 권고
 -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규율 보완 필요

현장의 목소리

- ▶ 최근 여러 업권이 연계되어 있는 금융사고 및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, 금융그룹 스스로 그룹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 <1.29. 정책세미나>
- ▶ 금융지주는 법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그룹 내부통제규정, 그룹 준법감시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중 <OO지주 현장방문>
- ▶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는 별개의 영역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 필요 <△△지주 현장방문>
- ▶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는 중요하나,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각 금융그룹이 계열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 <1.29. 정책세미나>

②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· 기준의 마련 및 준수

-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통된 기준을 소속 금융사간 협의를 통해 마련·준수

<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(예시)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금융그룹의 법령준수·윤리경영의무 선언 | ■ 기준의 적용범위 |
| ■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설치근거 | ■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의 기본방침 |
| ■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·역할 | · 계열사간 내부거래 |
| ·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 | · 계열사간 이해상충방지·관리 |
| | · 계열사간 인사교류(겸직·이직 등) 원칙 |
| | · 계열사간 업무위탁 |

③ 금융그룹 내부통제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그룹차원 공시 시행

- 시장 · 투자자들이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현황을 한눈에,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합·정리된 정보*를 공시

* 기존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그룹 차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·제공

< 지배구조 관련 통합 공시사항(예시)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■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| ■ 금융그룹 임원교류현황 및 선임사유 |
| ■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 협의회 구성·운영현황 | ■ 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권고·지적사항 및 개선이행현황(위험관리실태평가 등) |
| ■ 대표회사의 소속 금융회사 지분비중 | ■ 기타 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주요 현안 등 |

④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등 지배구조 부문 평가 강화

- 금융그룹의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신규로 반영하고,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확대*

* 현행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의 평가비중(10%)이 높지 않고, 소유구조 중심으로 평가

※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추진계획

- ◆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모범기준에 반영하고, 각 금융그룹별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('20.下)

Ⅲ. 향후 추진계획

1.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」 개정 관련

- 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* 연장 시행('20.5월초)
 - * 현행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」은 '20.7.1. 만료 예정
-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」 개정안 사전예고^(20일 이상)(3월중)
- 금융그룹감독협의체* 논의, 금융위원회 의결(4.27.^{예정}) 등을 거쳐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」 개정안 확정(4월말), 시행(5월초)
 - * (주재) 금융위 부위원장, (참석) 업권별 금융위 국장 및 금감원 부원장보 등
- 모범규준 연장 시행 전 세부방안을 확정하여, 모범규준 연장 시행 후 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」을 순차적으로 시행
 - 그룹위험 평가, 금융그룹 공시 등 세부방안 마련(4월말)
 - 금융그룹차원의 공시 시행(6월)
 - 그룹위험 모의평가 및 자본적정성 비율 모의시산(3분기)
- 모범규준 개정시 현행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재지정(5월초)

<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>

구분 \ 시기	'20년 상반기	'20년 하반기
자본적정성 평가※	▶ 그룹위험 평가모형 확정(4월)	▶ 모의평가 및 자본비율 모의시산(3분기)
보고·공시	▶ 보고·공시 세부방안 확정(4월) ▶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 시행(6월)	▶ 분기별 공시(계속)
내부통제	▶ 모범규준에 금융그룹 내부통제 체계 규율방안 반영(4월)	▶ 금융그룹별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(컨설팅) 및 평가(4분기)

※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공시,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법 제정 이후 시행

2.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관련

-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, 필요시 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」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